

# 칼빈의 교회론

신 복 윤

(합동신학교, 조지신학)

## 머 리 말

칼빈의 교회론은 그가 스트라스부르그(Strasburg)에 머물고 있는 동안(1538.9~1541.0) 성숙하여졌다. 그리고 이 성숙해진 자신의 교회론을 그는 기독교강요 제1판(1536년) 제4권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아마 스트라스부르그의 부처외에는 칼빈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에 배당한 지면을 보더라도 교회론을 얼마나 중요시 했던가 함을 알 수 있다. 그의 교회론은 제네바(Geneva)라 하는 작은 국한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었다. 사실 제네바를 위시하여 프랑스와 당시의 유럽전역에서 그의 교회론은 실현을 보게 되었으며, 역시 영국과 북미대륙으로 그 영향은 계속 번져 나아갔다. 한편 그의 사상은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청교도들이 미국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의 전 20장 중 19개장에서 교회를 여러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1559년까지 계속 증보된 칼빈의 이 최초의 신학적 저작의 변증적인 특징은 이 부분과 함께 강요의 모든 다른 부분에서도 역력히 보여지고 있다. 이 책이 주로 원수들의 공격과 비방을 대항하여 개혁파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졌

기 때문에 그의 염두에는 항상 로마 가톨릭교회의 악습과 우상숭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로마교회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종교의 대요가 무너지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붕괴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라고 한다면, 거짓과 허위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교황제도하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상황에서 남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의 사역 대신에 거기에는 기만으로 가득 찬 사악한 통치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교리의 순수한 광채를 소멸하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질식시키고 있다. 주의 성찬 대신에 거기에는 가장 더러운 독신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 예배는 차마 볼 수 없는 잡다한 미신들로 손상되었다. 교리(이것 없이는 그리스도교는 존립할 수 없다)는 전적으로 매장되어 배척당하고 있다. 공중집회는 우상숭배와 불경건의 학교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윗글에서 칼빈이 거짓된 로마교회를 대항하여 고발한 전체흐름을 볼 수 있거니와 여기에는 또한 칼빈의 기본적인 교회관의 윤곽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에게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sup>2)</sup> 이 점에서

1) Inst., IV, 2, 1-2(이것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4권 제2장 1,2절을 뜻한다).

2) Inst., IV, 2, 12. 그리고 IV, 2, 12. 그리고 IV, 2, 11에서는 비록 피괴되기는 했으나 로마교회에서도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칼빈은 다른 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로마교회에도 세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교회의 권위하에 남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거의 매장한 교회요, 복음을 폐지하고, 경건을 추방하며, 하나님 예배를 거의 없애버린 교회이다. 짧게 말해서 이와같은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렇게 부패하고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남은 백성을 그 속에 놀랍도록 보존”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교회가 계속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칼빈은 부패한 로마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 의 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회관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을 혼란시키며 불순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갔던 것이다. 그는 질서와 전통을 사랑하였다. 그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를 변호하였으며, 어떤 혁명적인 것에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현실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대로 새롭게 형성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칼빈의 교회관을 ① 피택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②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③ 교회의 필요성, ④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⑤ 교회의 표지, ⑥ 교회의 권징, ⑦ 교회의 직원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I. 피택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유형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단체, 곧 피택자 전체를 뜻한다.<sup>4)</sup> 교회는

3) Ibid.

4) Inst., IV. 1, 2 : OS, 5, 4, 2. (이것은 *Calvini Opera Selecta*의 약자로 칼빈선집 제5권 4페이지 2행을 뜻한다).•

천사나 사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그리고 국가와 종족에 관계 없이 피택자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sup>5)</sup>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은 칼빈의 교회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선택을 교회의 기초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치심을 품안에 품으신다(엡 1:13). 적은 수의 사람이 대중속에 숨겨지고 몇 알의 밀알이 쭉정이 더미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교회를 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 은밀한 선택”이라고 칼빈은 역설한다.<sup>6)</sup>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함으로 선택과 교회를 연결짓고 있다. 그는 교회론을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딤후 2:19)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을 생각하지 않는 한, 선택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sup>7)</sup>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의 머리시며, 그들은 자라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선민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엡 1:22 이하), 서로 연합되고 밀착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롬 12:5, 고전 10:17, 12:12, 17).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영생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도록 부

5) OS, 1, 86.

6) Inst., IV. 1, 2 : OS, 5, 4, 1.

7) Ibid.

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엡 5:30).<sup>8)</sup>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온 세계의 조직이 무너져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이 동요하거나 파멸될 수 없다. 둘째로, 교회는 영원 불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찢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신자들이 자기들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sup>9)</sup>

이렇게 칼빈은 교회와 선택 교리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택교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한다. 선택교리는 교회로부터 모든 종류의 방심과 자아능력을 빼앗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완수하도록 교회를 강화해 준다. 선택교리는 교회로부터 모든 종류의 거짓된 지주를 빼앗음으로 교회로 하여금 세상 권세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무적의 대결을 하게 한다. 칼빈의 교회론에 따르면, 선택교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평안과 확신과 자극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sup>10)</sup>

8) Ibid.

9) Inst., IV, 1,3; OS, 5, 6, 3.

10)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tr. by Harold Knight, 1956), p. 191.

## II.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 : 23).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 오시는 영역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때문에, 성도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엡 4 : 12).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라며(엡 4 : 15)서로 한 몸이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교회는 냉랭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 곧 서로 봉사하며 도와주는 공동체인 것이다.<sup>12)</sup>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의 공동체 사상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견해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말해준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통치자가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에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sup>13)</sup> 그리스도는 이와같은 통치자의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규례를 만드시고, 직원들을 구성하시고, 그 직원들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 계셔서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는 봉사를 받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교회 전체의 건덕을 세우도록 하신다고 칼빈

---

11) Inst., IV. 3, 2. OS, 5, 44, 25.

12) Inst., IV. 1, 2 : OS, 1, 466.

13)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 Eerdmans, 1965), p. 83.

은 강조한다.<sup>14)</sup> 이 세상의 재물도 형제들의 육신상의 궁핍을 함께 나누어 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자기 하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형제애로 결속되고 물질면에서 유무상통하게 된다.”<sup>15)</sup> 이와같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봉사에 따라 상호의존 하게될 때,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게 될 개인의 주권 행사가 제거된다. 이렇게 칼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교회에는 정치의 과제가 있고 상하의 질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원을 두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가 손상없이 보존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등한시되고, 회원들간의 상호봉사에서 형제애의 친교가 무너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내적 존재에서 가장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와 정치가 교회의 본질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질서와 정치는 제2차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으로나 공동체로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며 또한 이 고백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14) *Calvin's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Grand Rapids : Eerdmans, 1973), p. 268.

15) *Inst.*, IV. 1, 3 : OS, 5, 5, 15.

16) *Calvin's Commentarie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Grand Rapids : Eerdmans, 1973), p. 146.

17) Niesel, *op. cit.*, p. 189.

### Ⅲ. 교회의 필요성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을 준비하실 때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성례를 제정하심으로 하셨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 1장 첫머리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혹은 경박한)우리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는 데 매우 유익한 보조수단임을 체험한다.<sup>18)</sup>

이와같이 교회는 소명의 기구가 되며, 우리의 성화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복음 전파와 교적이 제정된 것은 신앙을 일깨워주며, 또한 칼빈이 “신앙의 일치”, 곧 신앙과 외적인 의식의 일치라 부른 것을 확립함으로써 교회의 집합적인 성화를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례의 주요한 기능은 신자의 신앙을 유지하며, 그들 각자의 성화를 도와 주는 데 있는 것

---

18) Inst., IV. 1, 1.



이다.<sup>19)</sup>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의 파괴된 접촉을 재확립하기 위해 신자들의 성화를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지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 지상적이며 인간적인 수단은 교회의 여러가지 기능과 직책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상에서 완성시키는 데 이 수단들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택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자들의 단체라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그 직무와 기능면에서 볼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sup>20)</sup>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매이게 되고, 또한 교회의 위임된 성화의 수단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 : 11 - 13)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순식간에라도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양육을 받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실시되는 방법을 보기도 한다. 곧 천국 교리에 관한 설교가 목사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역시 모든 사람이 유순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의 지도를 받기로 스스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동일한

19) Cf. F. Wendel,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Harper & Row : New York and Evanston, 1963), p. 292.

20) Wendel, op. cit., p. 293.

질서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자신의 입으로 주신 구원의 교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수단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는 우리를 이와같은 통상적인 구원방법에 매이게 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러한 가르침을 광신적인 사람들처럼 거부한다고 하면, 그는 많은 치명적인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복음의 설교는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의지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전체와 우리의 성화전체를 의존해야 한다.

교회의 필요성은 칼빈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한 말과 관련된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일생동안 다녀야 할 학교이다. 교회의 몸 밖에서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형교회(가시적 교회)를 논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어머니”<sup>22)</sup>라고 하는 단순한 명칭에서도 교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필요한가를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우리를 그 복중에 잉태하고, 해산하여, 그 품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어 버리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마 22 : 30) 우리를 보호하고 감독하며 지켜주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을 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허약함

21) Inst., IV. 1. 5.

22) 여기서 어머니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교회는 유형교회(the visible church)를 말하며, 또한 신자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기능은 구원에 필연적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은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퇴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이사야와 요엘이 증거한 것처럼(사 37 : 32, 율 2 : 32) 어떠한 사죄나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sup>23)</sup>

여기에서 칼빈은 싸이프리안(Cyprian)<sup>24)</sup>과 어거스틴(Augustine)<sup>25)</sup>의 그 유명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상은 일반적인 전통과 루터(Luther)<sup>26)</sup>의 주장과 일치하다고도 하겠다.

이 교리는 또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교회의 여러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격렬하게 공격해 온 칼빈이 어떻게 로마교회와 함께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로마교회는 이 교리로 교회의 절대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로써 모든 교인들을 지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신자는 교회로서의 한기관(institution)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 둘째로 이 교회는 인류를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sup>27)</sup> 그러므로 위에서도 본대로 칼빈은 이점에

23) Inst., IV. 1. 4.

24) Cyprian, *Letters* iv, 4 : lxxiii. 21 (ANF V. 282. 384), 그리고 싸이프리안은 그의 저서, *On the Unity of the Catholic Church* vi (LCC V. 127f)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하였다.

25) Augustine, *Enchiridion* xvii. 65 (LCC VIII. 377). 어거스틴은 여기서 교회 밖에는 사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ermons* 1 vi, 4, 5 (LF *Sermons* I. 69f.); *First Epistle of John* iii. 1 (NPNF VI. 476)를 참조하라.

26) Luther, *Great Catechism third article of the Creed. at the beginning.*

27) Inst., IV. 1. 5.

대하여 초대교회의 교훈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교부들의 증거를 신중하게 채택했던 것이다.

#### IV.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칼빈은 교회의 유형적인 면과 무형적인 면을 똑같이 강조한다. 1536년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는 교회의 무형적인 면 외에는 거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으나, 그 후 부처(Bucer)와 접촉하면서 서부터 유형적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1539년 기독교강요 제2판에서는 유형교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1543년 기독교강요 제3판에서는 부처의 이와 같은 사상적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28)</sup>

칼빈에 의하면, 성격은 교회를 두면에서 본다.<sup>29)</sup> 즉 무형적인 면과 유형적인 면이다. 이 구별을 처음 지은 사람은 루터였으나 다른 개혁자들도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칼빈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한 것은 그가 두 개의 별개의 교회가 있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 뿐이었다. 교회가 무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이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여기에 속하고 속하지 않았는지를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며, 성령께서 그들을 연합시킬 때 신비적인 유대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교회는 “양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

---

28) Wendel, op. cit., pp. 294 - 295.

29) Inst., IV. 1. 7.

는 것을 뜻한다.”<sup>30)</sup> 이것은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무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들의 단체, 곧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sup>31)</sup>

동시에 칼빈은 교회의 유형성을 강조하면서, 무형교회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유형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이 교회와 계속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32)</sup> 무형교회는 당연히 유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마치 사람의 영혼이 신체를 통하여 자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무형교회는 반드시 자체를 나타내게 될 외형적인 조직체에서 유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신앙고백과 행위, 말씀과 성례, 그리고 외형적인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적으로 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유형교회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교리와 사랑에서 하나가 됨을 증명한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의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을 보존한다.”<sup>33)</sup> 그러나 이 유형교회는 선택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도 섞여 있다.

30) Ibid.

31) 모든 피택자로 구성된다는 무형교회의 개념은 어거스틴의 사상이었으며, Wycliffe는 이 사상을 항상 즐겨 인용하였다. cf. Augustine, *City of God: Passim On Baptism* III. X I X. 26 ; Wycliffe, *De Ecclesia*, Wycliffe Society Edition, p. 37.

32) Inst., IV. 1, 7.

33) Ibid.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교회 안에는 이름과 겉모양뿐, 그리스도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위선자들이 상당히 섞여 있다. 여기에는 야심만만한 자, 탐욕에 불타는 자, 시기하는 자들이 있으며, 불평불만에 쌓인 자, 아주 불결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수다하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잠시나마 용납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세속법정에서 정죄를 받지 않았거나 엄격한 규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34)</sup>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실제로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니다. 많은 쪽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있는 것이다.<sup>35)</sup>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이며 본래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 V. 교회의 표지

칼빈은 루터와 멜랑톤(Melanchthon)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sup>36)</sup>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데 객관적인 표준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이 두 표지를 통하여 칼빈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였던 것이다.<sup>37)</sup> 칼빈은 그 두 표지를 다음과

34) Ibid.

35) Inst., IV. 1, 2, 7.OS, 5, 2, 8 : 5, 12, 12.

36) Augsburg Confession, art. vii. & viii. 여기서 교회는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되었다.

37) 개혁파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지의 수에 관하여는 각각 의견을 달리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순수한 전파라는 한 가지 표진만을 말하고(Bezal, Alsted, Amesius, Heidanus Maresius)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의 두 가지 표지를 주장했으며(Calvin, Bullinger, Zanchius, Gomarus, Maastricht a Marck),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가하여 권정의 신실한 시행을 말하기도 하였다

같이 제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들리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그대로 시행되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38)</sup> 칼빈은 이와같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였다.<sup>39)</sup> 다소 도덕적인 결합이나 병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역이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주요 교리나 모든 신지가 동일하게 승인해야 할 신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법적인 제도를 폐하거나 허물지 않는 한, 사소한 잘못들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sup>40)</sup>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핵심 속에 거짓이 스며들거나, 필수적인 교리의 근간이 붕괴되며, 성례가 파괴된다면, 목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듯이 교회는 즉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만일 신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맡길 것을 명령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교훈이 제거되었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회를 지탱하는 그리스도교의 요강이 무너지게 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라고 한다면, 기만과 허위가 재배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

---

(Hyperius, Martyr, Ursinus, Trelcatius Heidegger, Wendelinus).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등 세 표지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통례로 되어 있다.

38) Inst., IV. 1, 9 : 엡2 : 20 참조.

39) Inst., IV. 1, 9 - 12.

40) Inst., IV. 1, 12.

실이다.<sup>41)</sup>

그리스도는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명령하시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사의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수단들은 결코 공허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례가 시행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가 계신 곳에는 또한 그의 백성도 거기 있게 된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이와 같은 증거는, 비록 거기에 위선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장소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sup>42)</sup>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 곧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은 보다 넓은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례를 자주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sup>44)</sup> 오히려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주로 높이 들리움을 받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칼빈은 아직도 로마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하여, 이 교회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회의 표지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아니며, 상당한 종교단체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단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부패한 종파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주의 말씀

---

41) Inst., IV, 2, 1.

42) *Calvin's Commentary on Jeremiah*, 15 : 16.

43) Kilian McDonell, *John Calvin,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194.

44) Cf. Niesel, op. cit., p. 194.



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에 의해서만 지도받기를 원할 때 그렇게 된다."<sup>45)</sup>고 칼빈은 강조하였다. 칼빈의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의 교회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거요, 결코 종교적 친교의 본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sup>46)</sup>

## VI. 교회의 권징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교회의 의무에는 성화의 생활을 해 나아가도록 회원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할 일이 있다. 만일 교회의 설교가 헛되지 않고, 성례가 신자들의 신앙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모든 오류에서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아반성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회원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권징을 집행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회원들의 도덕상의 추문이 있을 때에만 말씀의 순결과 성도들의 성화의 생활을 보존수단으로 권징을 집행해야 한다. 교리에 혼란이 있고, 회원들에게 추한 행동이 있을 때, 이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위해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권징은 특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성찬에서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성찬과 관련된 이와같은 권징의 관념은 칼빈이 제네바 제1차 체류시절에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45)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28 : 21ff.

46) Niesel, op. cit., p. 195.

바젤과 스트라스부르그의 지도자들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sup>47)</sup>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 특징을 보존하고자 하면 권징은 필수불가결의 것이 된다. 일찍이 1536년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sup>48)</sup>

권징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려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반항하고 교회 자체를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는 이단과 분리주의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단순히 교회의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교회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sup>49)</sup> 교회가 참된 교회나 아니냐 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교회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들을 제재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방종한 회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러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으로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며 불명예스럽게 하는 자들은 교회의 가족에서 추방해야 한다.”<sup>50)</sup>

---

47) Cf. F. Wendel, *Calvin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Harper & Row : New York and Evanston, 1963), p. 292.

48) Inst., IV, 12, 5.

49) Niesel, op. cit., p. 189.

50) Ibid. : 칼빈은 여기서 다시 성찬시행과 권징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1543년판 기록교강요의 구절을 첨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 점에서 주의 성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참여케 함으로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권징의 둘째 목적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는 일이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만일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유지된다고 하면, 다른 회원들도 역시 마귀에게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생각하고 있었던 권징의 둘째 목적이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근친상간하는 자를 형제들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5:6)고 경고하였다. 칼빈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신자들의 엄격한 종교적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윤리생활까지도 생각에 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회의에 제출한 지도방침을 보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한 것은 신자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칼빈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이 권징은 세속적 사법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법적 성격을 띠지 않은 것이 아주 명백하다. 그것은 억압적인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공중질서를 보호하려고만 의도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칼빈의 셋째 목적에서 제시한 대로 그것은 언제나 영혼의 치료에 있었다.<sup>51)</sup>

권징의 셋째 목적은 과문당한 자가 회개하여 마침내는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한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벌을 받고, 교회의 체책을 맞음으로 그들의 과오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찬의 분배를 맡은 자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자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의 몸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51) Wendel, op. cit., p. 300.

다.<sup>52)</sup> 권징의 최초적인 목적은 이와 같이 교육적인 데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아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자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점에서는 그와 의견을 달리했다. 루터가 교회의 두 표지(notae ecclesiae), 곧 복음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주장한 데 대해서 부처는 여기에 교회의 권징을 하나 더 가했던 것이다.<sup>53)</sup>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했지만, 교회개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 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칼빈의 생각대로 교회의 조직에 속한 것이지 교회의 정의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sup>54)</sup> 교회는 비록 그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회원들이 현재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다.

## VII. 교회의 직원

개신교역사에 있어서 칼빈만큼 교회의 직원에 대하여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은 없다 그는 교회가 직원들의 봉사를 통하여 존속하기 때문에, 주로 직원의 조직을 중시해서 교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오토 베버(Otto Weber)는 “칼빈의 교회는 직원을 중심한 교회이다”라고까지 말한다.<sup>55)</sup> 교회의 직원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

---

52) Inst., IV, 12, 5.

53) 부처는 그의 저서 *De Regno Christi, Scripta Anglicana*, p. 36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전파,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을 들고 있다.

54) Wendel, op. cit., p. 301.

55) Otto Weber, *Die Gesamteaufsätze*(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p. 65.

을 대변하는 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직원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을 세우셨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봉사를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권능을 행하시지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입을 통하여 자기 일을 성취하신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권위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게 우리들 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마 26 : 11), 우리는 그가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으나,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연장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56)</sup>

직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직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에서 그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고후 5 : 20 참조),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하게 하시며, 그를 대표하게 하신다(눅 10 : 16).<sup>57)</sup>

칼빈은 교회를 위한 직원의 봉사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바울은, 사람의 봉사는 신자들을 결속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힘줄이라는 말로 사람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

56) Inst., IV. 3. 1.

57) Ibid.

다는 것을 가르치신다.”<sup>58)</sup>

하나님은 이 직책을 통하여 교회에 은사를 주시며, 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자신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므로써, 성도의 갱신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엡 4:12),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엡 4:15 참조).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질서와 교회정치를 거절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음식이 필요하지만,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목회적 직분이 더욱 필요하다.”<sup>59)</sup>

칼빈은 복음 선포의 직책을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고후 4~6장:3:9).”<sup>60)</sup> 이사야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외쳤다(사 52:7). 주님은 사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시어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셨다(마 5:13, 14). 그리고 주님은 복음의 사역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임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셨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눅 10:16).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가? 오토 베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개인적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

58) Inst., IV. 3. 2.

59) Ibid.

60) Inst., IV. 3. 3.

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믿음과 사랑,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음성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음성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을 통하여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sup>61)</sup>

칼빈은 목사(pastores), 교사(doctores), 장로(presbyteri), 그리고 집사(diacani) 등 네가지 형태의 직원을 말한다.<sup>62)</sup> 그가 이와 같은 네 직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부처의 영향을 받은 데서 기인한다. 물론 그는 네 직분론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1543년판 기독교강요에서 이 교리를 제일 처음으로 활자화하였다. 칼빈은 이 교리를 기독교강요보다는 교회 헌법에서 더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 같이 중요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원은 목사라고 칼빈은 말한다.<sup>63)</sup> 목사직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물론 교회의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을 맡은 직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위도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고, 올바른 처리를 유지하며 실시하기 위해 임명된 자들이다.<sup>64)</sup> 칼빈은 목사직을 예베소서 4:11 주석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61) Otto Weber, op. cit., p. 72.

62) 1541년과 1561년의 교회헌법.

63) Inst., IV, 3, 4.

64) Inst., IV, 3, 6.

한편 목사는 모든 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일정한 임지나 목적없이 떠돌아다니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보다는, 목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마음대로 교회를 버리고, 함부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목사는 각각 자기의 한계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입해서는 안된다.<sup>65)</sup> 목사는 자기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목사 다음가는 직책은 교사이다. 교사는 성경 해석의 책임을 맡아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다.<sup>66)</sup> 이들의 기능은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sup>67)</sup> 칼빈은 이 두 직분을 하나로 보고, 기독교강요 결정판에서는 교회의 직원을 네 가지로 보지 않고 세 가지로 보기도 하였다.<sup>68)</sup>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함께 교회의 처리를 맡는다. 칼빈은 장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스리는 사람들”(고전 12 : 28)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sup>69)</sup> 이 말에서 우리는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설교권을 가진 장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스리는 직책을 맡은 장로는 부지런하고, 경건하며,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장로의 직분은 한 시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험상 모든 시대에 필요한 직분이다.<sup>70)</sup>

---

65) Inst., IV. 3. 7.

66) Inst., IV. 3. 4.

67) Inst., IV. 1. 1.

68) Inst., IV. 4. 1.

69) Inst., IV. 3. 8.

70) Ibid.



마지막으로 집사직이다.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구체사업을 관리하며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sup>71)</sup> 사도들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sup>72)</sup>고 하여, 칼빈은 사도시대 교회의 집사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제네바 교회에는 집사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와 병자를 돌보는 집사였다. 성경에서 집사는 구제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고 빈민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가 위임한 사람들이었다. 누가는 사도행전 6:3에서 집사의 기원과 임명과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칼빈은 직분의 형태를 말할 때, 어느 특정한 시대에 필요한 직분과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구별하였다. 즉 임시직과 항존직이다. 그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복음을 전하는자)를 임시적으로 보고, “이 세가지 직책은 교회 내의 항존적으로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 세우거나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할 당시에 한한 것이었다.”<sup>73)</sup>라고 하였다. 한편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sup>74)</sup>와 집사<sup>75)</sup>를 항존적으로 보고, 이런 직분들은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회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직분이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칼빈은 직원의 소명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소명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구별하고, “우리가 제공된 직책을 받는 것은 야심이나 탐욕이나 그밖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소원” 때문이라고 말

71) Inst., IV. 3. 9.

72) Ibid.

73) Inst., IV. 3. 4.

74) Inst., IV. 3. 8.

75) Inst., IV. 3. 9.

하고 이것이 내적 소명임을 암시하였다.<sup>76)</sup> 그리고 이 소명은 선거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sup>77)</sup> 즉 이 소명은 교회라는 매개를 통하여 오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외적 소명이다. 이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을 견고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소명자에게 준다. 소명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아야 하고(히 5:4), 다음에 이 소명에 응해야 한다. 즉 명령을 받은 일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8)</sup>라고 하여 정당한 소명의 필수조건이 무엇임을 칼빈은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칼빈은 이 물음에 대해서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그들의 권위를 빼앗거나 그들의 사역에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야 한다”(딤후 3:2-3; 딤후 1:7-8)고 하였다.<sup>79)</sup> 집사와 장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딤후 3:8-13).

그러면 누가 사역자들을 택할 것인가? 물론 선거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결정 지을수가 없다. 결정은 모든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분배해 주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리신다.<sup>80)</sup> 사람들의 선거는 이 결정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셔서 바울도 임명하셨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한 소명의 규율을 이용하셨다.”<sup>81)</sup>고 함으로 칼빈은 교회에서의 선

76) Inst., IV. 3. 11.

77) Inst., IV. 3. 10.

78) Ibid.

79) Inst., IV. 3. 12.

80) Inst., IV. 3. 11.

81) Inst., IV. 3. 14.

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일반 신도의 합의와 승인을 얻어서 임명해야 한다”<sup>82)</sup>고도 그는 말한다. 선거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 누가는 신자들이 장로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했다(행 14:13). 그들은 무엇보다도 엄숙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의 경의와 주의를 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히 기도에 전념했으며 지혜와 분별의 영을 하나님에게 간구했다”(사 11:2 참조).<sup>83)</sup>

이렇게 교회가 선택한 사역자들은 안수를 받음으로 그 직책에 임명된다. 안수(the laying on of hands)는 새 사역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사역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sup>84)</sup> 안수는 또한 성령의 은사를 베풀 때에도 사용되었다(행 19:6). 어쨌든 안수식은 교회의 사역자를 임명할 때마다 거행된 엄숙한 의식이였다. 안수에 대하여는 일정한 교훈은 없으나 사도들이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방법을 엄숙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수는 사역자 자신과 교회에 다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의식은 직분의 위엄을 교회에 알리는 표징으로서 유용한 동시에, 임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매인 몸이라는 것을 경고한다”<sup>85)</sup>고 칼빈은 안수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안수는 회중 전체가 하지 않고 목사들만이 하였다. 불

---

82) Inst., IV. 3, 15.

83) Inst., IV. 3, 12.

84) Inst., IV. 3, 16.

85) Ibid.

른 안수식에 참여한 목사수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으나 일곱 집사와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여럿이 안수한 것이 분명하다(행 6:6; 13:3).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자기 혼자 디모데에게 안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딤후 1:6).

# 신복윤교수의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논평

이 형 기

(장로회신학대, 역사신학)

19세기의 개신교 선교활동은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였으나 1948년 암스텔담의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68년 읍살라의 WCC에서 절정에 도달했고, 1973년 방콕대회에서는 "사회적 구원"이 클로즈업되었다. 이러한 WCC의 맥락 속에서 1952년 윌링겐의 국제선교대회(IMC)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주장한 이래 그것이 1954년 에반스톤의 WCC를 거쳐 1961년 뉴델리의 WCC에서 강화되고 1968년 읍살라의 WCC에서 절정에 도달했다. 다시 말하면 1968년 읍살라의 WCC에서 교회의 사회참여는 가장 첨예화하였고, 바야흐로 신학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요한 23세가 주선한 제2바티칸공의회(Vatican II : 1962 - 1965)가 교회의 사회참여(gaudium et spes)를 강조한 후 1969년 메델린(Medellin)의 주교회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용하는 "해방신학"에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따라서 19세기만큼 선교활동이 강하게 불타올랐던 때도 없었고 20세기만큼 교회의 사회참여가 강조되는 시기도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볼트만은 교회의 사회참여가 강조된 이래 오늘의 교회와 신학은 "정체성"(iden-

1) 이형기,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나타난 교회와 사회", 교회와 신학, 제 XX (장신 출판부, 1988), pp. 171 이하.

tity) 과 “참여”(relevance)의 위기상황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학과 교회가 현대의 문제들에 부심하고 관계하면 할수록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더욱 위기에 떨어진다. 반면에 이들이 전통적인 교리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 및 전통적 도덕표준들을 주장하려 하면 할수록 이들은 현대의 문제들에 더욱 무관심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참여’(Identity - Relevance)의 딜렘마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같은 이중적 위기를 경험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한 심사숙고만이 무엇이 기독교적 정체성이고 무엇이 기독교적 참여인가를 밝혀줄 것이다.<sup>2)</sup>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에큐메니칼적이고 WCC적인 교회들의 정체성(Identity)이 뒤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신박사님의 “칼빈의 교회론”은 한편 크나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다른 한편 “참여”(relevance)의 측면에 관하여는 앞으로 좀 더 탐구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장점은 교회의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역동적인 인격관계가 희미해가는 이때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일반역사와 사회를 인간 교육의 장으로 강조하는 오늘날 어머니와 학교로서의 교회,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는 이때 은혜를 매개시켜 주는 은혜의 외적 수단(The External Means or Aids by which God invites us into the Society of Christ and Holds Us Therein)<sup>3)</sup>으로서의 교회, 누가 과연 기독교인인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묻고 있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2) J. Moltmann, *The Crucified God*(Harper & Row, 1974), p.7

3) Calvin, Inst., IV. : Battles는 “Means of grace : Holy Catholic Church”라고 Inst.의 제IV 장 상단에 적어놓고 있다.

표지를 지닌 유형교회와 선민인 무형교회로서의 교회, 끝으로 무작정 민주화를 부르짖는 나머지 교직의 고유성을 상실해가는 이때 4중적인 교직을 지닌 조직교회의 강조 등은 교회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20세기 후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강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본 논문의 약점들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본 논고는 역사신학적 탐구라기보다는 조직신학적인 연구인 바, 역사신학적 측면이 좀더 제시되었으면 한다. “칼빈의 교회론은 그가 슈트라스부르크에 머물고 있는 동안(1538.8 - 1541) 성숙하였다”고 필자가 언급했는데, 부처(M. Bucser) 등 기타 스위스의 개혁신학 전통이 말하는 교회론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보다 더 역사신학적 탐구가 되기위해선 초판 기독교강요(1536), 제2판 기독교강요(1539), …… 최종판(1559)에 이르는 각 작품들에 있어서 칼빈의 교회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상세히 제시했어야 했다.

2. 적어도 칼빈의 교회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각 기독교강요의 전체구조 속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 있나를 밝혔어야 했고, 특히 최종판 강요(1559)의 내용구조 속에서 교회론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나를 논했어야 하지 않을까? 즉 1559년 최종판의 경우, I. 창조주 하나님, II. 구속주 하나님, III. 성령, IV. 교회와 국가가 그 내용구조인데, 왜 교회가 제IV장에 놓여 있나를 설명했어야 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신박사님이 왜 예정론에 의한 교회정의를 그의 논문 제1장에 두셨나를 물어야 한다. 최종판 기독교강요의 내용구조에 의하면 예정론이 제III장 성령론 안에서 구원과 성화를 논한 다음 그리고 제IV장 교회론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 구조는 바울의 로마서의 내용구조와도 같다.

3. 제 I 장 “피택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와 제 IV 장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리고 제 V 장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는 피차 연결시켜서 논해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예정된 사람의 총수”(universus numerus praedestinatorum)가 결국 무형교회일 것이고 (교회의) 표지를 지닌 유형교회야말로 무형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VI 장 “교회의 권징”을 제 VII 장 “교회의 직원” 중 특히 “장로”(lay elder) 직에 연결해서 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장로”제도가 치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며, 당회나 노회 역시 치리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본 논문은 칼빈이 말하는 “교회의 표지”를 루터의 그것과 거의 동일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대체로 루터와 칼빈이 다같이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본다고 하였다. 즉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성도들의 모임”(Aug. conf., art. vii et art. vii)이 루터의 교회표지인데 칼빈은 “신앙고백”만을 첨가하였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은 루터의 2가지 표지에다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3번째 표지를 첨가하였다. 즉 칼빈은 말씀에 대한 신앙인의 반응을 중요시하였다.

We have laid down as distinguishing marks of the church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observance of the sacraments. These can never exist without bringing fruit and prospering by God's blessing. I do not say that wherever the Word is preached



there will be immediate fruit ; but wherever it is received and has a fixed abode, it shows its effectiveness However it may be, where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s reverently heard and the sacraments are not neglected, there for the time being no deceitful or ambiguous form of the church is seen ; ……(Inst., IV, I, 10)

칼빈은 누가 하나님의 피택된 자녀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신앙고백과 삶의 모범을 말했다.

… a certain charitable judgment (iudicium caritatis) where by we recognize as members of the church those who, by confession of faith, by example of life, and by partaking of the sacraments profess the same God and Christ with us. (Inst., IV, I, 8)

이상의 인용과 칼빈의 “율법의 제3사용”(usus legis tertivs)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칼빈의 경우 3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그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up>4)</sup>에서 “치리”(discipline)를 교회의 표지에 하나 더 포함시켰다.

5. 끝으로 제Ⅵ장 “권징”과 제Ⅶ장 “교회의 직원” 중 “장로” 부분을 장로제도의 기원과 연결시켰어야 하지 않을까? 칼빈의 장로제도는 그의 슈트라스부르크 체류시에 부처(Bucer)와 카피토(Capito)에게서 배운 것으로 이들은 7교구의 각각에서 3명의 모범된 평신도를 뽑아 목사의 치리를 돕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이

4) *The Book of confessions*, publ.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hil. : 1967), p. 3, 18.

러한 평신도들을 “Kirchenpfleger”(a board of lay workers)라 칭하였다. 칼빈은 이것을 모체로 하여 1537년 제1차 제네바 종교개혁 때 제네바시의회에 제출한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간청한다. 즉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믿는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삶이 방정한 몇몇 사람을 선출하여 제네바시의 여러 행정구역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각 행정구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감찰하고 다스리며 이들 중 비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목사들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sup>5)</sup>

칼빈은 위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1541년 제2차 제네바 종교개혁 때 제네바시의회에 제출한 ‘L’ordonnances ecclésiastiques’에서는 12명의 장로를 제정하였는데, 이들은 제네바의 정부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로서 모범된 평신도들이었다. 이들 12명은 모두 제네바 정부의 소의회(the Little Council)에 의해서 지명되었는데, 이 12명중 2명은 소의회의 회원이었고, 4명은 60인 의회(the Council of Sixty)의 회원이었고, 나머지 6명은 200인 의회(the Council of Two Hundred)의 회원이었다. 이 12명의 선출과정에서 목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참고되었다.<sup>6)</sup> 결국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율법의 제3 사용)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찬”을 중요시했고, 이것을 위해서 치리와 권정을 강조했고, 슈트라스부르크 체류기간 동안에 배운 장로(lay elders)제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5) 이형기, 기독교강요요약(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6), p. 368.

6)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63.